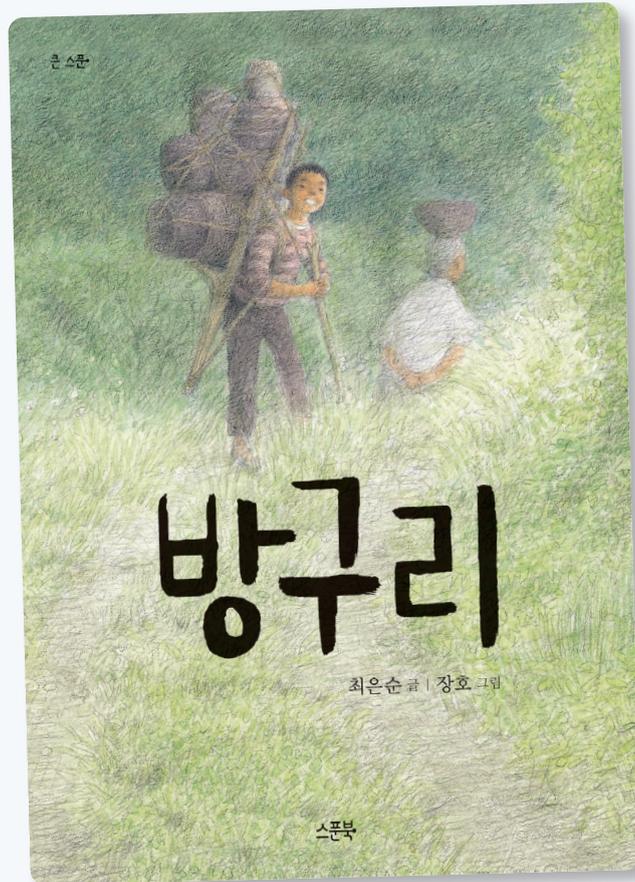


초등 5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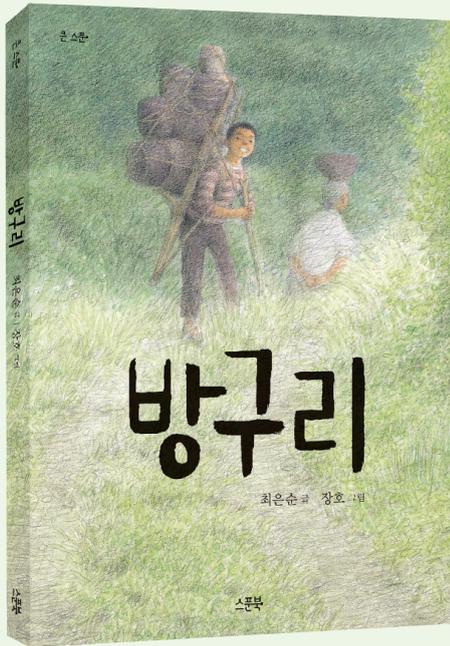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방구리

글 최은순 | 그림 장호

스폰북



방구리

- 글: 최은순
- 출판사: 스펀북
- 분량: 176쪽
- 교과 연계: 국어 5-1 가 4. 작품에 대한 생각
국어 5-2 가 1. 문학이 주는 감동
- 그림: 장호
- 정가: 11,000원
- 대상: 초등 고학년

📖 책 소개

짚레꽃이 필 무렵, 길수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길수 아버지는 길수 엄마가 만든 방구리를 고이 간직한 채 길수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릴 뿐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옹기와 직접 만든 방구리를 팔던 엄마가 집을 나가자 길수네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길수는 학교를 그만둔 채 할머니와 옹기를 팔러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수는 짚레꽃 골짜기에서 피꼬리 소리에 이끌려 길을 잃고 낯선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과연 길수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표지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방구리》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방구리

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
1	
2	
3	



독서 전

• (2~3) 《방구리》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질그릇이란 진흙만으로 만들어 구운 그릇을 말합니다.
 ‘방구리’도 질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문득 옛날에 쓰던 질그릇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런 그리움들을 다시 끌어내고 싶어서 동화로 빚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요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 짚어 주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말 중에서

2 방구리는 무엇인가요?

.....

.....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예상해 보세요.

.....

.....

.....

.....

.....





독서 중

• 아래 설명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20쪽] 그때 만호 할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움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할머니 손에 붙들려 온 만호 얼굴이 그새 산머루를 짓이겨 놓은 것처럼 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래도 눈빛은 팔팔 살았다.

“길수 네놈이 우리 만호를 이렇게 때려 뺐다면? 이놈아, 이 얼굴 좀 봐라! 길수 아버지, 약 사서 발라 주게 약값 물어내슈. 어서요!”

만호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길수와 아버지를 몰아쳤다.

귀가 따가웠다.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길수를 봤다.

[59쪽] 길수는 동네에 이따금 오는 그릇 장사 아저씨 때문에 () 그릇을 알게 되었다. 손수레에 양은그릇을 잔뜩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 아저씨가 동네에 들락거리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은 가벼워서 쓰기 좋다며 너도나도 양은그릇을 하나, 둘 사서 썼다. 양은그릇은 곳곳마다 유행이 되어 길수가 그릇을 팔러 다니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었다. 할머니는 양은그릇 때문에 질그릇 팔리는 게 예전만 못한 거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저씨는 () 그릇도 싣고 다니면서 팔았다. 하지만 () 그릇은 만호네만 샀다.

1 길수가 만호를 때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질그릇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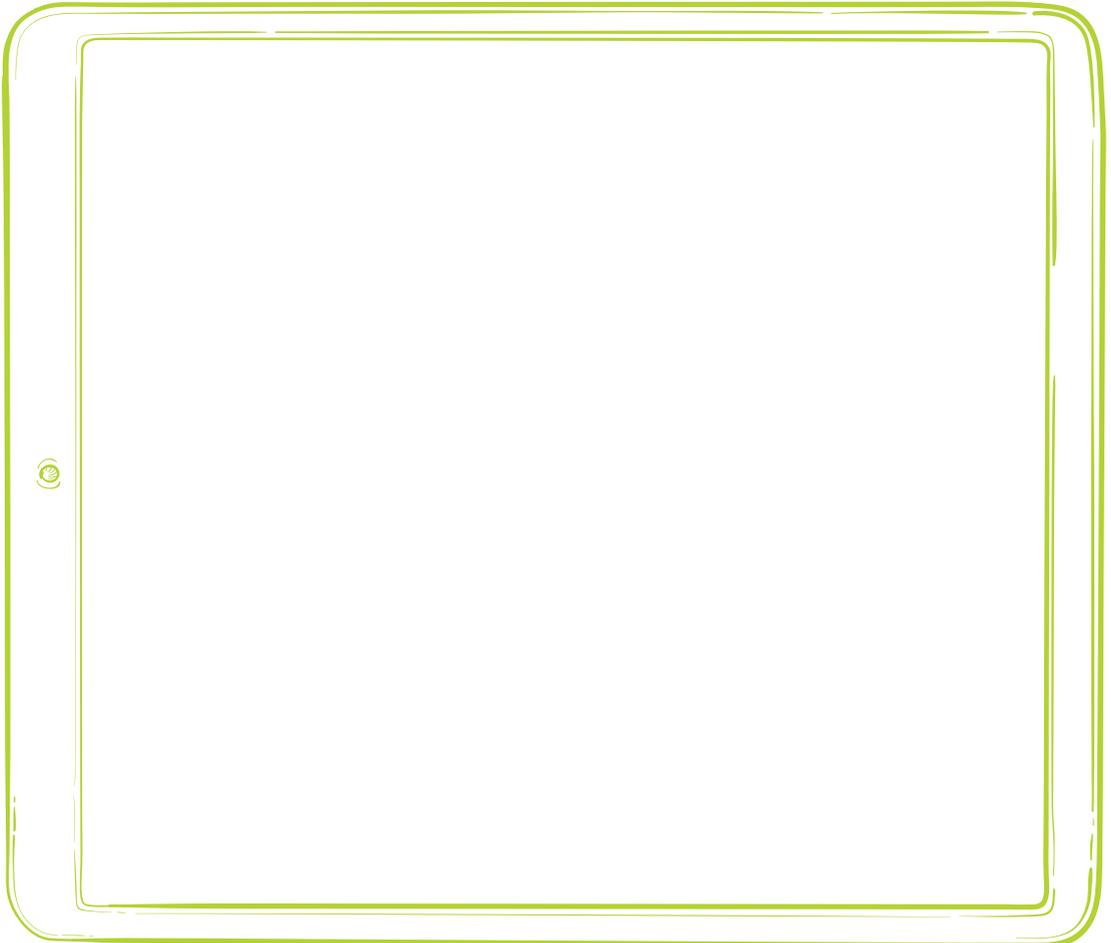




독서 중

• 다음 글을 참고해서 방구리로 차려진 밥상을 그려 보세요.

[29쪽] 방구리는 원래 반찬 그릇과 밥그릇으로 쓰는 질그릇이 아니다. 그런데 엄마는 분이 주먹만 한 방구리부터 대접 크기만큼의 고만고만한 방구리들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썼다. 길수는 어릴 때부터 늘 밥상에 오른 그릇들이라 방구리가 반찬그릇, 밥그릇인 줄 알았다. “이것 봐라, 숟가락질하기 수월하라고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쓰는 방구리는 다른 방구리에 비해 주둥이를 넓게 빳었지 뭐냐.” 할머니가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하며 책 읽기

- 『방구리』의 일부입니다. 길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그릇을 팔러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6-17쪽] “오빠아!”

분이 반갑게 부르며 달려왔다. 분이는 학교에서 오면 해질 녘까지 놀기 바쁘다. 분이의 손에는 껌은 애기똥풀이 쥐어져 있었다. 분이의 열 손가락 손톱이 노랗다. 애기똥풀에서 나오는 노란 물을 손톱에 칠한 것이다. 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개울둑에서 놀며 길수가 분이에게 해주었던 놀이다.

“오빠, 내일부터 진짜 학교 안 가?”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길수는 오늘 마지막으로 학교를 갔다 왔다. 할머니가 많이 늙어 함께 그릇을 팔러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22-23쪽] 오늘 선생님은 길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교문까지 따라왔다. 선생님은 길수네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매일매일 그릇을 팔러 가야 된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그릇을 팔러 가지 않는 날은 학교에 오라고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라고 했다.

“엄마가 하루빨리 오시길 선생님도 빌어 줄게. 엄마가 오시면 학교는 다시 다니면 돼. 알았지? 철식이랑 미순이도 늦게 다니고 있잖아.”

선생님은 풀이 죽어 있는 길수에게 힘내라고 해 준 말이었을 것이다.

길수네 반에는 열여덟 살인 철식이 형이 있다. 철식이 형은 열세 살 때 입학했다. 미순이 누나는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3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다.

‘선생님 말대로 학교는 다음에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 속상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나라면,



독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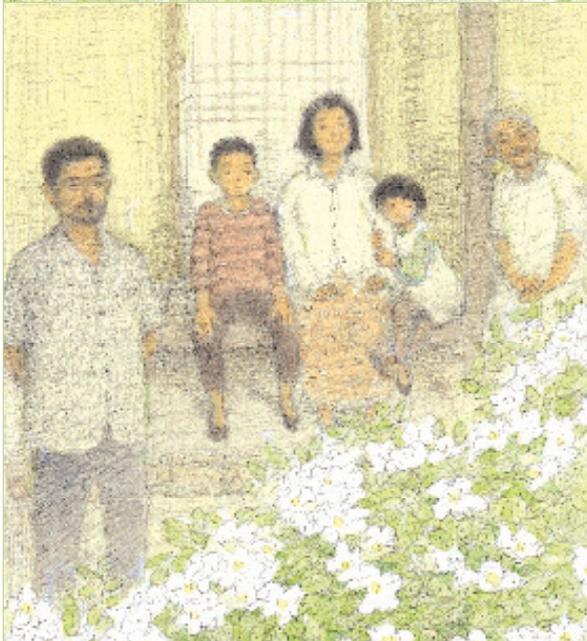
• 다음은 《방구리》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 다음은 《방구리》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 《방구리》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1 길수가 사는 마을 이름은 무엇인가요?

.....

2 길수네 마을 이름이 정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길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나요?

.....

4 만호 아버지가 쓰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독서 후

• 다음 힌트를 참고하여 《방구리》에 나오는 낱말이 무엇인지 맞춰 보세요.

긴 다리를 모으고 힘 있게 계속 솟구쳐 뛰다. (17쪽)	질퍽에 박힌 왕모래나 지푸라기 같은 거친 것들을 걷어 내는 일 (17쪽)	명사 나무의 꼭대기 줄기 (23쪽)
쇠붙이나 흙으로 아궁이처럼 만들어 솥을 걸고 쓰게 만든 물건 (28쪽)	명사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방법 (39쪽)	명사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방법 (39쪽)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 (49쪽)	물체의 거죽이 안으로 우묵하게 패어 들어가다. (93쪽)	복이 많다. (164쪽)